

통권 제14호

2022년 3월

INSIGHT

동남권지역혁신 인사이트

In This Issue

COLUMN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부산의 국제개발 협력 _ 홍순범

OPINION

1992년~2022년 베트남-한국 간의 협력 현황 _ 딘티리번

ISSUE DIAGNOSIS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외부적 고찰 _ 김애진

아세안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한-BIMP-EAGA 협력 _ 구보경

HOT PAPER

Sin Stocks Revisited:

Resolving the Sin Stock Anomaly _ 성현정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통권 제14호

2022년 3월

INSIGHT

동남권지역혁신 인사이트

Contents

03 COLUMN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부산의 국제개발 협력 _ 홍순범

05 OPINION

1992년~2022년 베트남-한국 간의 협력 현황 _ 딘티리번

07 ISSUE DIAGNOSIS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외부적 고찰 _ 김애진

아세안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BIMPEAGA 협력 _ 구보경

12 HOT PAPER

Sin Stocks Revisited:

Resolving the Sin Stock Anomaly _ 성현정

15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부산의 국제개발 협력



홍순범

한국국제협력단(KOICA)부산사무소장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강령이다.

부산은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유치가 최우선 시정 과제로 최근 유치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대형전광판 등 시내 곳곳에서 월드 엑스포 유치와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열기가 대단하다. 오늘 출근길에도 우리 사무실이 있는 벡스코 전시장 앞 광장에도 우뚝 솟아있는 월드 엑스포 유치 광고판이 눈길을 끈다.

우리 정부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원팀으로 민관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범국가적으로 월드 엑스포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편, 특기할만한 점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 시민 보고회에서 2025년 일본 오사카 월드 엑스포의 사례를 들며 ODA(공적 개발원조)를 외교·유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것.

지자체에서는 평소 개발 협력 분야에 충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대부분 해외자매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수준에서 개발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는 그야말로 부산의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무상원조 총괄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유치 지원기관으로 동참, 부산 월드 엑스포와

연계한 개도국 협력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국제개발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기회인가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큰 관건이다. 엑스포 유치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부산은 개발 협력 기반구축, 재원확보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BIE 회원국을 포함한 ODA 중점협력국과의 해외지역협력을 확대, 이를 계기로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한 발 더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ODA 역사가 시작된 곳은 부산항이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원조물자가 들어오는 창구였다. 원조물자 하역 항에서 지금은 세계 5대 컨테이너항이자 공여국으로서 원조물자를 실어 내보내는 곳이 되었고 이제는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로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피난 수도, 우리나라 원조 역사의 출발지에서 세월이 지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끝나는 2030년에는 전 세계와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한 출발지가 된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부산은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제4차 세계개발 원조총회(세계 개발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을 체재두고는 우리나라의 원조역사와 발전사를 말할 수 없다. 개발 협력 분야에서 부산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태생적 우위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저“우리가 그랬었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아닌 듯한 게 아쉽다. 2030 월드 엑스포 주제(강령)와 연결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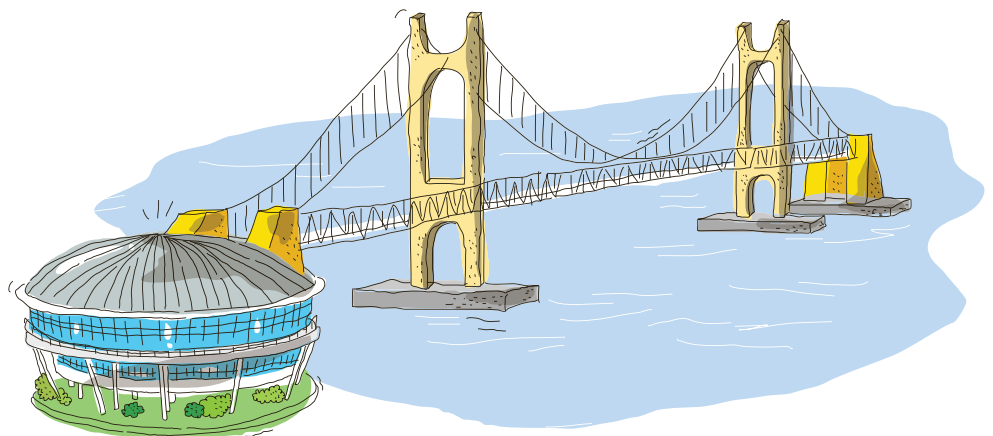
스토리텔링도 멋지게 만들고 이번 기회에 개발 협력 분야를 도시외교의 주요 방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7월경 부산의 대표일간지 중의 하나인 국제신문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 내에 원조 역사관 건립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다음 날 행사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드엑스포 유치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전화를 받고 무척 흐뭇했던 기억이 있다. 조금이나마 월드엑스포 유치에 기여한다는 뿌듯함이었다. 실제로 행사 유치가 확정되고 원조역사관이 건립된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 부산지역에 개발협력 환경이 발전된다는 상상만으로도 힘이 난다.

지면을 빌어 이번 기회에 우리 기관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 4월 설립, 외교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서 프로젝트, 해외 봉사단과전, 글로벌연수, 국제기구협력 등 우리나라 무상원조를 총괄하고 있다. 전 세계 44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는 하나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바로 부산사무소가 유일한 국내 사무소다. 부산 사무소는 2013년 5월 부산지역센터로 부산에 첫발을 딛게 되었고 이후 2017년 1월에 국내사무소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KOICA사업 국내 지원, KOICA 및 개발협력 인지제고 사업, 지자체, 유관 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정부는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와 운영을 국정과제(외교부,

산업부)로 채택했다. KOICA는 유치 지원기관 중의 하나로서 지정된 바,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에 적극 동참하려 하고 있다.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홍보, 재외공관 무상원조 신속 집행, 초청연수생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부산사무소 차원에서도 KOICA-부산시 간 협력을 통한 유치홍보 등에 적극 나서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의 성공을 기원코자 한다.

부산은 해양·수산, 스마트 도시, 대중교통, 도시 재생, 영화·영상,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우위 분야가 널려있다. 특히, 영도(동삼동)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조사원(KHOA),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10여개의 해양수산전문 기관들이 모여 있는 해양클러스터도 이미 조성되어 해양관련 기관들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는 잠자고 있던 부산의 개발협력분야 잠재력을 일깨우고 지자체 ODA를 선도해 나갈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생태계가 더욱 잘 갖춰지면 KOICA 부산사무소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이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는 원조역사의 시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시대의 끝을 뒤로하고 부산의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이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에 승선했다 부산의 역사적인 항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bama068@koica.go.kr>



1992년~2022년 베트남-한국 간의 협력 현황



딘티리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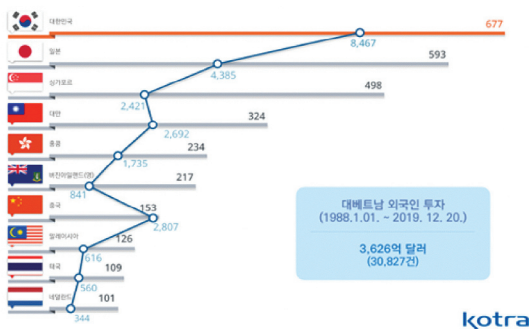
베트남 호찌민시 반랑대학교 한국학과 소장

베트남-한국 간의 경제 관계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은 무역-관광-투자 등 다방면에서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한국은 동남아 시장 특히 베트남 시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1992년 베트남-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교하여 베트남-한국 간의 협력 관계는 새로운 희망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베트남-한국은 ASEAN-한국, ASEAN+3, ASEAN+6, APEC, ASEM, WTO 등 다자간 협정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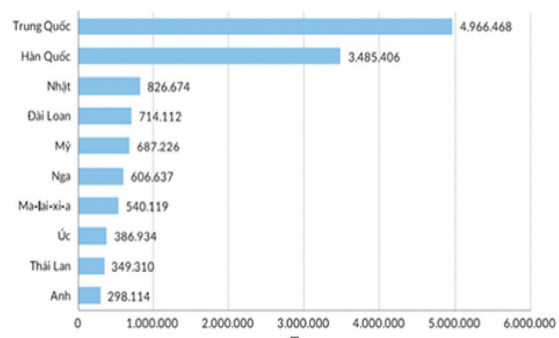
677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해외 투자의 18.7%를 차지하여 베트남 최대 투자자가 되었다(그림 1). 베트남-한국 간의 무역도 63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중 베트남은 175억 9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450억 7000달러를 수입했다(베트남 통계청-관세청). 한편,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베트남에 많은 관광객을 공급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2018년에 베트남으로 간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44.3% 증가한 340만 명에 달하였다(그림 2).

<그림 1> 국가별 베트남에 투자 현황
(1988.01.01~ 2019.12.2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통계

<그림 2> 2018년 국가별 관광객 현황



출처: 문화체육 및 관광부, 관광청

베트남-한국 간의 정치 협력

베트남-한국은 정상 회담 및 공식적인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1998년 김대중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응웬 민 지엣 (Nguyen Minh Triet)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에는 응웬 쩌 쉐 (Nguyen Tan Dung)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판빈민 (Pham Binh Minh)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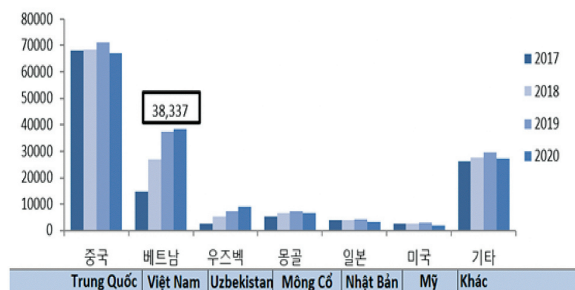
공식 방문하고 “한국에서의 베트남 주간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의 기관, 부서, 지사 및 지역은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2014년, 양국은 하노이에서 제3차 “베트남-한국 전략 대화” 회담을 개최했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2018년에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 쩌딘중(Trinh Dinh Dung) 부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베트남 외교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수호하는 데에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인식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도약으로 평가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베트남-한국 간의 문화 및 기타 분야 관계

1999년에 베트남-한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양측은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9월 베트남과 한국은 “V-KIST 설립 사업”에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인 KIST 모델의 표준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특허(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은 한국특허청(KIPO),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IT), 지식재산관리자동화분야 협력, 특허 협력 조약(PCT)에 관련된 권리와 문제의 시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따른 정보 교환과 직원 양성을 통해 강화된다. 그리고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2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616명이 교육분야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국은 과학기술협력협정,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 그리고 연구원 및 산업 기술 단지 간의 협력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여 19만 명 이상이며, 2021년 기준 한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수는 3만 8천 명이다.(그림 3).

<그림 3> 국가별 한국 유학생 현황(2021년7월)



출처: 한국 교육부

노동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대만에 이어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노동 수입 시장이고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국으로 노동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현재 베트남 사람 48,000명 이상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법 협력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원과 한국 법원이 2002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원 사무관학교 역량강화사업(현 법원사관학교)은 가장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이는 판사, 법원 공무원을 위한 교육, 양성, 법원 시스템의 직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모든 종류의 사건의 판결 및 해결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안심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 및 상업 분야에서 사건의 법률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맺음말

베트남-한국은 정치외교, 경제, 교육, 과학기술개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 개발과 사회생활 개선, 교육 및 문화교류 향상에서 상호 협조하고 있다. 베트남은 항상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며 양국이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van.dinh@vlu.edu.vn>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외부적 고찰



김애진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조교수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미얀마의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도 '미얀마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시민의 수는 202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2,088명에 이른다(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AAPP). 또한, 쿠데타와 관련하여 14,695만여 명의 시민들이 구금되어 있으며, 974명이 직접 선고를 받았고 이 중 어린이 2명을 포함한 59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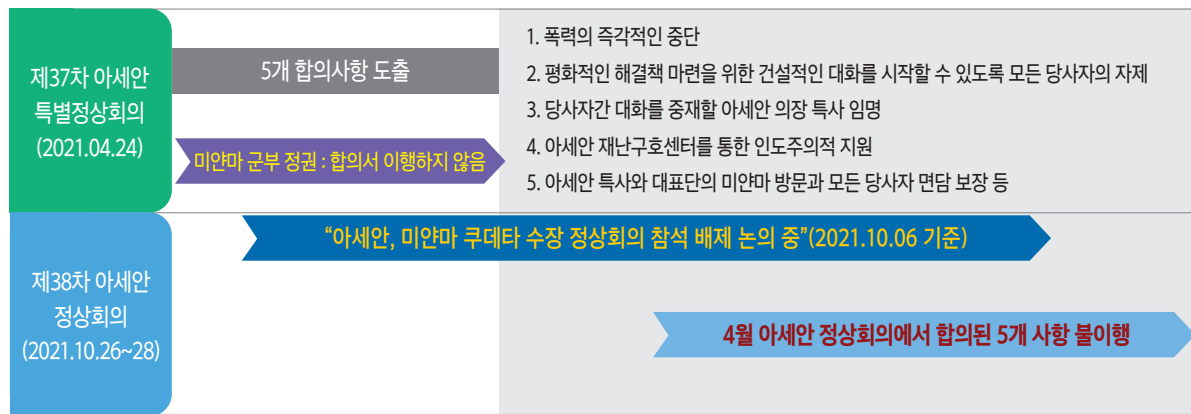
미얀마의 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미얀마의 시민들은 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며 그들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불복종운동(CDM :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주화에 대한 그들의 모든 힘을 쏟아내어 국민통합정부(NUG :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출범하였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처절한 노력에 부산시도 함께 힘을 모았다. 2021년 3월 5일 부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부산시의원 47명 모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등에 전달되었다. 부산시는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며 이러한 모습은 슬픔 속에 잠겨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시선에서 보면 부산시는 2013년 1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인연이 있으며 미얀마와 부산은 꾸준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은행과 BNK금융 계열사의 BNK 캐피탈은 까친, 떠닌파리, 마그웨이, 몬, 바고, 사가잉, 산 등 40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양곤 지점은 쿠데타 이후 영업을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은 모든 달러화를 미얀마 짜(Kyat)화로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미얀마 정부의 새로운 외환관리법을 발표하여 미얀마와의 지속가능한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로 UN(United Nation)의 소극적인 자세와 UN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 국제기구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그들만의 방법인 '아세안 방식(ASEAN Way)'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미얀마 군부의 정상회의 참석 배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깬 이례적 조치이자 경고였다. 의장국 브루나이와 함께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관계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압박이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조심해왔다.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유혈사태 해결을 위해 약속한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은 원칙을 깬 결정을 하였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합의서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합의서 요약 ©김애진

제 37차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21.04.24.)에서 협의가 이뤄진 내용들이며, 이 회의를 통해서 5개의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둘째, 평화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의 자제 셋째,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할 아세안 의장 특사 임명 넷째, 아세안 재난구호센터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다섯째, 아세안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과 모든 당사자의 면담 보장 등이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정권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에 개최된 제38차 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에서는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개 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미얀마 쿠데타 수장의 정상회의 참석 배제를 논의하였다.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발표한 성명에 따른 미얀마 쿠데타는 지역 안보를 넘어 아세안의 통합, 신뢰성, 중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아세안은 그 특유의 '아세안 방식 (ASEAN Way)'을 지키고 있으며, 10개국 회원국

모두가 합의 (Consensus)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특히 아세안의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과 성장의 비결을 4C로 대표할 수 있다. 아세안 4C는 아세안 공동체 (Community), 아세안 헌장 (Charter), 아세안 연계성 (Connectivity), 아세안 중심성 (Centrality)이다. 아세안은 그들만의 중심성과 체계 안에서 아세안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ODA자금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 문제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되었다. 특히 유상원조, 무상원조 모두 큰 폭의 수컷으로 지원이 중단되었다.

ODA 예산 감축 및 유상원조 사업의 중단 등에 대한 이유는 물론 다양하다. 쿠데타를 견제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했고, 미얀마 시민들의 ODA 중단 요청에도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연내에는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 전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표1> 한국의 중점협력국(CLMV) 공적개발원조(ODA) 증감률

중점협력국	2020(확정액)			2022년(확정액)			2020년 대비 증감률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캄보디아(C)	501.1	503.6	1004.6	535.2	1253.8	1789.0	+784.4 (증가)
라오스(L)	416.1	563.7	979.8	455.3	645.1	1100.4	+120.6 (증가)
미얀마(M)	395.1	543.3	940.4	110.0	29.7	139.7	-800.7 (감소)
베트남(V)	600.9	967.0	1567.9	605.9	864.7	1470.6	-97.3 (감소)

조정된 것이나 원조의 중단으로 미얀마의 국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원조의 효과성 측면에서 원조의 지원과 중단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미얀마 시민을 돕기 위해서는 유상과 무상의 원조는 중단 또는 감소하더라도 무상 원조 범위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증가되어야 한다.

미얀마에는 약 3,600여 명의 교민이 거주 중이다. 미얀마 쿠데타 사건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미얀마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미얀마 쿠데타를 외부적 관찰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 사건을 비추어 볼 수 있다.

“현재 집에서 전혀 나올 수 없을 만큼 양곤 시내의 위험성은 높아졌다.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위협에 처할 수 있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3월 15일 “A” 한국인 인터뷰)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은 양곤 시내에서 약 30분 가량 소요되는 곳인데 이곳 역시 양곤 시내만큼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강력하다. 다행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어서 간단한 식료품을 사러 이동할 때도 조심 하기는 하지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2021년 3월 22일 “B” 한국인 인터뷰)

“현재 모든 공식적인 NGO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미얀마 시민을 만나는 모임 자체가 국가가 정한 범죄 목록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체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학생들과 문자 또는 전화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2021년 3월 22일 “C” 한국인 인터뷰)

미얀마에서 10개의 교육시설과 47개의 식수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NGO 단체 역시 현재 모든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학교 운영이 어려워 교육지원사업도 대기 상태이며, 대부분의 NGO들은 정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직원들의 방문과 출장 등 모든 외부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다.

공적개발원조자금의 감소와 NGO들의 활동 축소의 피해는 결국, 미얀마 시민들의 빈곤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에 대한 지원, 인권보호 측면에서 외부적 고찰을 통해 귀결되는 결론은 인도적지원의 강화의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얀마 쿠데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무고한 어린이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미얀마의 봄”을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 물론 미얀마 쿠데타의 해결 방법은 현재로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 사회와 아세안 대응의 한계와 가능성은 여전히 국제 사회의 합의와 미얀마의 내부적인 합의 방안이 없이는 완벽한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하되 지역연구에 근거하여 외부적인 관찰과 고찰을 통해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노력 그 자체가 가장 차가운 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얀마의 봄”을 더 늦지 않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stherkim737@gmail.com>

<표2>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NGO 활동현황

NGO 단체명	활동현황	NGO 단체명	활동현황
A 단체	전체 활동 중단	E 단체	전체 활동 중단
B 단체	전체 활동 중단	F 단체	전체 활동 중단
C 단체	전체 활동 중단	G 단체	전체 활동 중단
D 단체	방역물품 지원 사업만 운영	H 단체	방역물품 지원 사업만 운영

※ NGO 단체명은 단체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A, B, C기관으로 명명

ISSUE DIAGNOSIS

아세안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한-BIMP-EAGA 협력



구보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전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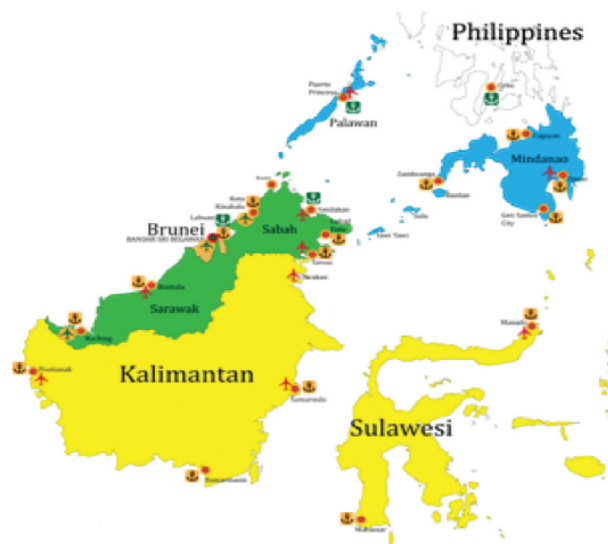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2017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한 이후 양자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2021년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이고 한국은 아세안의 제4의 교역대상으로 서로에게 필수적인 협력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COVID-19가 발생한 이후 글로벌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량은 2021년 1,765억 달러(US)로 팬데믹 발생 전보다 16.5% 증가하였다.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관광, 교육 등을 통해 인적교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아세안의 경제 회복을 위해 브루나이·다루살람-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동아세안성장지대(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이하 BIMP-EAGA)와 한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다. BIMP-EAGA는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역내 고도성장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94년 창설된 소지역경제협력체이다. 동아세안성장지대는 지리적으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략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Kalimantan), 술라웨시(Sulawesi), 말루쿠(Maluku), 파푸아(Papua) 지역, 말레이시아의 사라왁(Sarawak), 사바(Sabah), 라부안(Labuan) 지역, 필리핀의 민다나오(Mindanao)와 팔라완(Palawan)을 포괄한다.

BIMP-EAGA 2017년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소지역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 전략인 <비전

BIMP-EAGA 포괄 지역



2025>를 수립하였다. <비전 2025>는 소지역이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 식량, 관광, 환경, 사회·문화·교육'의 5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 부분이 주도하여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전력, ICT, 대중교통 등 다양한 영역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IMP-EAGA의 장기적 목표는 자원 기반의 경제에서 비자원경제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경 간 생산물, 공공서비스와 인적자원의 이동 절차를 완화하고, 인프라 및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무역, 관광,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본전략은 민간 부분이 주도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정부와 기관은 민간 투자가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세안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해양동남아 소지역협력의 일환으로 2021년 한-BIMP-EAGA 협력 기금(BIMP-EAGA and 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Fund, BKCF)을 신설하였다. 제1차 협력기금 100만 불(US)을 활용하여 연결, 환경, 관광영역을 우선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67건의 제안서를 참여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2022년 6월 17일 개최된 제2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정의혜 대한민국 외교부 아세안 국장은 한-BIMP-EAGA 협력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BKCF이 300만 달러(US)로 증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BKCF를 기탁받아 관리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BIMP-EAGA 국가에서 수요가 높은 기후 변화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며, '민다나오 카카오 농가 지원 사업(Developing Land Management Options for Diverse

Cacao-based system in Mindanao)'과 'BIMP-EAGA의 잠재적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Potential in the Area of BIMP)'에 대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민다나오 카카오 농가 지원 사업은 필리핀 민다나오 코타바토(Cotabato)지역의 남부 민다나오 대학의 제안으로 구현되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주요 카카오 생산지역으로 고품질 카카오 열매 생산을 위한 기술과 역량 구축을 통해 소규모 농가들이 기후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프로젝트는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아세안에너지센터(ASEAN Center for Energy: ACE)가 제안하였다. BIMP-EAGA는 태양열·풍력·지열 에너지, 천연가스, 수력발전, 바이오매스(biomass)를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BIMP-EAGA가 청정에너지 투자를 증가하는 데 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IMP-EAGA 참여국은 제2차 SOM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BKCF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물류, 소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 등 다양하고 성과 지향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해양동남아를 대상으로 한-BIMP-EAGA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세안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nico1211@naver.com>



HOT PAPER

Sin Stocks Revisited: Resolving the Sin Stock Anomaly

D Blitz, FJ Fabozzi (2017),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Fall 2017, 44(1), pp.105-111.



성현정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연구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금리 인상 공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전쟁의 공포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0.25%만 올리면서 지수는 반등하였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이다.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곳곳하게 하락세를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술·담배·도박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 기업을 뜻하는 '죄악주(sin stocks)'이다. 죄악주는 비윤리적이고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죄악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자세한 분류는 <표>에 나타나 있다. 나스닥이 작년 11월 고점 대비 지난 3월 중순까지 21.6%까지 하락하는 동안 죄악주를 모아놓은 AdvisorShares ETF(상장지수펀드)는 2.5%만 내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열풍으로 죄악주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왔으나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는 죄악주로 관심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죄악주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심리적 부채에도 불구하고 죄악주는 불확실한 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엘로우 칩'인 것일까? 또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최근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유행에 불과한 것인가?

<표> 죄악 산업 분류

죄악 산업	세부내용
주류산업	술 제조 및 판매, 술 수입, 술병 디자인
생명공학	유전공학, 동물실험, 줄기세포 연구
무기제조업	권총제조, 군사무기제조
게임산업	도박, 게임
담배제조업	담배제조(담배 종이 제조 포함), 담배관련 상품 제조
성인산업	온라인 성인오락, 음란 온라인 채팅, 성인음란물 제조 및 판매

※ 참고 : Sin Stock Returns(2008), Frank J. Fabozzi 외 2인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예일대학의 Frank J. Favozzi교수는 21개국을 대상으로 1970~2007년 약 30여 년간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시장 수익률 대비 도박 관련주는 26.4%, 담배관련주는 14.7%, 무기는 24.6%, 성인서비스 10%, 주류 5.3% 등의 초과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서 평균 19%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avozzi교수는 그 이유로 첫째,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죄악주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선호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식에 비해 상승여력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죄악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규자금을 수혈하기 어려운 산업이 많아 사회적 해자(social moat)가 존재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즉 죄악주는 오히려 죄악주라는 이유로 인해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 밖에 없는 ‘프리미엄’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10년 후 2017년 다시 한 번 「죄악주에 대한 재검토(Sin Stock Revisited)」라는 연구논문으로 2016년까지의 주식시장을 분석하여 죄악주가 여전히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죄악주라는 이유로 더 높은 주가상승력을 가진다는 일명 ‘죄악주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정하였다. 업그레이드 된 분석기법과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죄악주라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Fama-French 3요인 모형에 영업수익률(profitability)과 자본투자(investment)를 추가한 Fama-French 5요인 모형을 통해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사이에 수익률을 제어한 결과, 죄악주의 대부분이 소형주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승한 것이지 죄악주 프리미엄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자는 죄악주는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는 전통적 시각과 함께 돈만 잘 버는 비도덕적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ESG원칙에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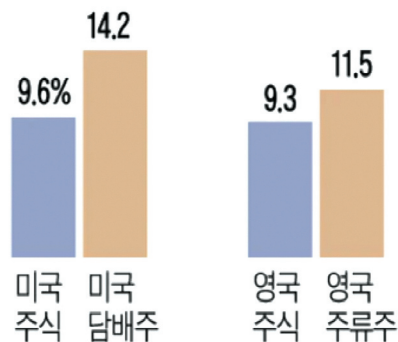
한편 실체가 모호한 죄악주 프리미엄을 배제하고도 실제로 죄악주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결과에 대해 Favozzi교수와 연구자들은 ‘잘했지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doing good but not well)’ 평가하였다. 투자는 개인과 기관의 선택이므로 수익성을 근거로 죄악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지만,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투자운용사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죄악주와 같이 ESG 관련 위험이 높거나 ESG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이나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림>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죄악주 수익률

약세장 버텨낸 죄악주



죄악주 수익률 ※1900~2019년 연평균 수익률



※ 출처: 신수지, ‘꽃꽂하게 버티는 죄악株’, 조선일보 기사, 2022.03.31.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3/31/JMAMDT52YREQ7NM2CXSEQNAQ/>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최악주에 대한 금융계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EU에서는 '안보 없이는 지속가능성은 없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과거 최악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방산업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스웨덴 금융그룹 SEB는 방산업계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2021년 입장을 철회하였다. 또한 SEB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키는데 핵심으로서 자사가 운용하는 일부 펀드에 방위산업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와 블랙록은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화석 연료라는 이유로 외면하였던 석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신규투자 중단 요구를 멈추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악주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윤리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인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최악주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입장에 따라 변화하는 단기적인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신념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ESG, 지속가능 투자를 외쳐온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같이 불확실하고 방향성을 잃은 시장은 그들을 위한 시험대가 아닐까? 불투명한 시장에서 올바른 투자를 위한 길잡이는 결국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이다. 그 어느 때보다 ESG에 대한 의심과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빛을 바라는 것이 길잡이 별, 북극성이기 때문이다.

<hjsung9@pusan.ac.kr>





부산대, '우리시대 질문총서' 신간 발간 기념 북토크 진행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우리시대 질문총서' 신간 4종 발간 기념 온·오프라인 북토크 행사를 개최한다.

부산대는 올해 3년째 시대의 성찰을 담아낸 '우리시대 질문총서'의 신간 4종(10~13권)을 발간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교내 제12공학관 204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북토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변화들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성찰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는 부산대의 학술서 편찬 기획 시리즈다. 2019년 첫 연구서를 펴낸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휴머니즘·젠더·다중사회 등을 다룬 9권의 저·역서를 선보였다. 올해는 미생물·유전·팝음악·과학융합교육 등에 관한 신권 4권을 발간했다.

3일간 진행되는 북토크 행사는 △16일 남윤경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의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융합교육'과 현재환 교양교육원 교수의 '유전의 문화사' △17일 장철훈 의학과 교수, 박형섭 불어불문학과 교수의 '미생물의 참모습' △18일 인성기 독어독문학과 교수 '무즈여 노래하라-인문학자가 본 팝음악' 등 저·역자로 참여한 부산대 교수들이 각각 특별강연을 맡아 학술역량 강화와 기초학문지식 대중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여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가능하다. 현장 참가 신청은 부산대 출판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21410240012758>

부산일보 2022-2-14



부산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년 연속 인증 및 '우수인증대학' 선정



**국제화 전략,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화역량 '우수'
유학생 비자 간소화, 정부초청 장학생 가점, 해외유학박람회 우대 혜택**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서 3주기('20~'23, 매년 평가) 인증대학 유지 및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전략과 유학생 선발 · 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와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부산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불법체류율, 등록금부담률, 중도탈락률, 언어능력소지율 등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로 인증받았다. 이번 인증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3주기 인증대학 모니터링에서 '인증유지'뿐만 아니라,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을 획득한 부산대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 주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문석 부산대 국제처장은 "2년간 지속된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비롯해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 준수 상황에 대한 대학의 대처 능력 또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부산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 분야 및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eneu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290>

이뉴스투데이 2022-3-2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해야”



사진=부산대 제공

부울경·제주 입학처장·본부장 협의회, 청원문 발표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부울경, 제주지역의 4년제 26개 대학의 입학처장(본부장)이 협의회 총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빠른 실행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 확대를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소재 26개 4년제 대학의 입학처장 및 본부장 협의회(회장 김삼열, 동의대 입학처장)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국토 총면적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리는 데 비해 다른 지역들은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진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 확대’의 입법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실행을 주장하는 청원문을 발표했다.

한편 청원문에 이름을 올린대학은 가야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등이다.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976>

한국대학신문 2022-3-7



부산시·대학·기업, 2100억 규모 지역혁신플랫폼 유치 나선다



부산시는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함께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협업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부산시교육청,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부산상의,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 대선조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남부발전, 부산연구원 등 20개 지역 혁신 기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부산시장과 부산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참여 기관·기업이 모여 제1회 (예비)지역협업위원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와 지역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구성한 지역협업위원회는 앞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인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한 뒤 취·창업을 유도해 지역 정착으로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부산 지역과 대학 혁신에 향후 5년간 2145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의 기관과 기업들은 ‘그린 스마트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스마트 해상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 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등 3가지 핵심 분야, 9개 대과제, 20개 소과제를 추진하는 지역혁신플랫폼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교육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유치해 하반기부터는 울산과 경남 지역혁신플랫폼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반드시 부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유치해 지산학협력 혁신도시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 지역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과도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부울경이 공동 번영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717065860423>

부산일보 2022-3-8



2022년 KIEP-GPAS 사업 '제2회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포럼 개최'



부산대학교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룸에서 '1회 지속가능발전 부산 포럼'과 '제2회 KIEP-GPAS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포럼'을 잇달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는 그동안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정책으로 연계해 다양한 유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선언'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강화했다.

'제1회 지속가능발전 부산 포럼'은 이러한 부산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돼, 권오병 경희대 학무부총장의 'AI × SDGs 대학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발제가 진행됐다.

또,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 윤리경영전략센터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KIEP-GPAS 동남아 지역연구 포럼'은 김이재 경인교육대 교수의 '지도로 읽는 동남아의 힘'에 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김동엽 부산외대 교수),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외부적 고찰'(김애진 동서대 교수), '인도차이나 비교 연구'(조흥국 부산대 명예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대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지원하는 국제지역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인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비수도권 유일의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전문 대학원을 설치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석수 부산대 기획처장은 "이번 지속가능발전 부산 포럼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포럼의 개최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화와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2181208365770528

e대한경제 2022-2-18



2022년 KIEP-GPAS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부산대학교 유통경영전략센터에서는 KIEP-GPAS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2022년 1월 7일(금) 개최하였다. 동남권(부울경)지역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8팀이 참가하여 다양하고 기발한 주제로 치열한 경쟁속에 진행되었으며, 'New's Cosmetic Box'를 주제로 발표한 Cos-Bridge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팀 명	성 명	제 목	시상내역
Cos-Bridge	이창한	New's Cosmetic Box	대상
	박길홍		
	김류림		
OHO	최보운	베트남 시장 한국 영유아용품 판매 전문 플랫폼	우수상
	석아라		
박은정	박은정	싱가포르 밀키트 구독 서비스	장려상
어푸어푸	지영호	해양 구조 밴드	장려상
	문경지		
K-Farms비긴즈	김진아	콜드체인(Cold Chain)과 앱을 활용한 국내 농산품의 동남아시아 진출	-
	오진환		
	신진원		
어울림	정다감	온라인 비대면 한국어 교육 콘텐츠	-
	탁혜원		
	왕치엔		
Go-Back	백미성	치떡, 동남아 날다!	-
	고지영		
미정	김지은	GRAB과 KAKAO의 Joint Venture E-Commerce	-
	황인수		



2022년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 통권 제15호(6월호) 원고 모집

부산대학교에서는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통권 제15호(6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모명** |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 통권 제15호(6월호) 원고 모집
- 모집분야** |
 - COLUMN: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산, 학, 관, 민 파트너십
 - OPINION: 지역혁신·혁신경영·지역협력 등 동남권 지역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의 추진전략·방법 등
 - ISSUE DIAGNOSIS: 동남권 관문공향, 식수문제 등 지역 현안
 - HOT PAPER: 파트너십 등 혁신경영 관련 해외 HOT PAPER 소개
 - CASE STUDY: 윤리경영·CSV·지역혁신 관련 동남권 기업 사례
 - NEWS: 동남권지역혁신 관련 주요 소식으로 지역에 홍보가 필요한 행사 계획 및 성과 홍보
- 원고분량** |
 - COLUMN / OPINION / ISSUE DIAGNOSIS: A4용지 2매 내외
 - HOT PAPER: 제한없음
 - CASE STUDY / NEWS: 제한없음(사진 및 이미지 등 필요내용 첨부가능)
- 제출방법** |
 - 윤리경영전략센터(sbe-center@pusan.ac.kr)로 사진/이미지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 ※ 이메일 발송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 기입요청
- 원고마감일** | 2022. 06. 30.(목)까지 (이후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
- 참여대상** |
 - 부산대학교 및 동남권지역대학 교직원·대학(원)생
 - 동남권지역 관, 산, 연, NGO 등의 기관 임직원
- 활용계획** |
 - 선정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제공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제작과정을 거쳐 「동남권지역혁신INSIGHT」 통권 제15호(6월호)에 게재됩니다.
- 문의사항** |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행정실 (☎ 051-510-1084)



※ 본 뉴스레터 관련 콘텐츠 문의는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051-510-1084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 편집위원회 sbe-center@pusan.ac.kr

본 뉴스레터는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의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